사업회 소식

사업회 임직원, 5 · 18민중항쟁 제29주년 기념식 참석

5 · 18민중항쟁 제29주년 기념 서울행사가 지난달 18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배우 권해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5 · 18의 정신은 나눔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며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5 · 18정신의 현실적, 창조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권의 가치를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 자신을 반성, 성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5 · 18민중항쟁기념 제5회 서울청소년대회 시상식이 이뤄졌으며 이후 극단 〈신명〉의 마당굿 '일어서는 사람들'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부대행사로 주먹밥 나누기, 5 · 18사진, 노래, 시 전시회가 열렸다.

사업회 전 · 현직 임직원 등, 봉하마을 조문

지난달 26일(화)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등 45명은 '故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했다. 기념사업회 전 · 현직 임원, 6월항쟁계승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조문단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약 15분에 걸친 조문행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앞에서 조의를 표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현실을 개탄하였다. 이어 장의위원회 관계자의 안내로 고인의 생가 등 봉하마을을 둘러보며 조문 일정을 마쳤다.

사업회 김영준 신임 이사 선임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9일(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에 김영준 씨(62세)를 임명했다.

김영준 신임 이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왔으며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대통령 비서실 사회비서관 등으로 활동했다.

연구소,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시민사회 공동국제학술회의 개최

연구소는 지난달 8일(금)과 9일(토) 이틀 동안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를 향한 도전들; 독일통일과 동부유럽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후의 경험들〉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업회와 베를린자유대학교, 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학술회의 명과 동일한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사업회 연구소장인 정근식 서울대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참석하여 '이행과 변환 이후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를 위하여', '대항해시대; 최소강령적 민주주의로 본 한국 시민사회를 향한 도전' 이라는 영문 발표문을 놓고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렘쿨 베를린자유대 부총장,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교수,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교수, 레샤코프 모스크바대 교수, 쿠르바초프 샹트페테르부르크대 교수, 코마 부다페스트대 교수, 뢰벤슈타이노바 프라하대 교수, 야나샥 바르샤바대 교수 등 독일과 동유럽의 대표적인 한국학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체제 변환과 민주화의 노정을 밟고 있는 독일과 동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나아가야할 바를 토론 하였다. 사업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베를린자유대와 '체제변환', '이행', '시민사회' 등의 주제를 놓고 보다 장기적인 비교연구, 정례적인 학술행사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

광주인권상 수상자 사업회 방문

2009광주인권상 수상자인 버마 민주화운동가 민꼬나잉(47세, 본명 파우유툰)과 버마 망명정부의 의원 일행이 지난달 20일(수) 기념사업회를 찾아 한국 민주화 진영의 지원을 호소했다. 버마 의원연맹의 테디 부리 의장과 버마 변호사협의회의 떼인 우 의장, 그리고 전 버마 학생연맹 외교위원인 아웅 묘 민은 이날 함세웅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기념사업회가 보여준 한국 내 버마 이주노동자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심을 버마 내부의 시민 역량 강화로 보다 확대해 주기를 부탁했다.

함세웅 이사장은 이에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경험을 이야기 하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때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한국 민주화 진영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사업회 소식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 샛길 정화행사

사업회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달 23일(토) 오전 10시 북한산 국립공원 내 도봉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사무소와 공동으로 샛길정화행사와 북한산 살리기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샛길정화행사에는 사업회를 비롯하여 민주화운동공제회,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박종철기념사업회, 대구경북민주동문회, 주거권실현을위한주민연합, 임대주택국민연합, 비닐하우스국민연합,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푸른공감 등 단체들이 참여하여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였다.

기념사업 기획자문회의 열려

제4기 기념사업기획자문회의 제3차 회의가 지난달 6일(수) 오후 4시부터 사업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념사업팀의 올해 사업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2010년도 기념사업계획안과 4 · 19혁명 50주년 사업계획안이 검토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문피해자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분들과 사업회와의 신뢰구축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 활동을 시작한 4 · 9통일평화재단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독립운동가족을 위한 김장나눔 사회공헌봉사활동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참석자가 공감을 표시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특히 현 시기는 과거에 비해 운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회에서 현장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현장에서의 운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과 시설에 대한 표지석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국의 관련 단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다이내믹 한국현대사〉 이동전시 진행

기념사업팀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한국현대사 사진전시를 진행했다. 18일(월) ~ 20일(수)은 연세대학교에서 5 · 18민중항쟁 기념주간에, 18일(월) ~ 25일(월)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열사추모기간에, 23일(토)~24일(일)은 광주에서 열린 제6회 5 · 18청소년문화제 기간에 〈다이내믹 한국현대사〉가 전시되었다. 〈다이내믹 한국현대사〉는 현대사의 주요 사진을 통해 한국현대사의 맥락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전시물이다.

※이동전시가 필요한 학교나 단체, 기관은 기념사업팀(이수원, 02-3709-7614)으로 연락하면 된다.

〈아! 태극기〉 전 독일 전시

독일 하노버시에서 열린 사진 전시 〈Magic Movement : Korea Express〉에 사업회가 2006년 개최한 〈아! 태극기〉전이 함께 전시되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46일 동안 개최된 이 전시에는 한국작가 20여 명이 참가했고, 〈아! 태극기〉전의 사진들은 섹션 1 'Korean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의 한 파트로 전시되어 큰 반향을 얻었다. 전시장 내에는 사업회가 발간한 외국어 출판물과 그동안 개최했던 전시의 팸플릿 등이 소개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외대 학부생 사료관 현장수업

지난달 2일(토) 사료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견학수업을 진행했다. 이 날 진행된 견학수업은 한국외국어대 교양강좌 〈현대사회와 기록관리〉 현장 수업의 일환이었다. 사료관 견학수업은 강의실에서 배웠던 기록학 기초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고, 현장 실무자와의 대화를 통해 배움을 깊게 한다는 취지에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수업은 서고 견학, 사료관 소개, 아키비스트와의 대화 순서로 진행됐고 약 8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사료관은 앞으로도 대학과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견학 실습을 계속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기록학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